

HEADLINE NEWS

「 굶주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 2003 봄축제 개최 (달러스)

미국 달러스市에서는 텍사스 푸드뱅크, PTCIR (People That Care International Relief), 市의원 등이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굶주림을 덜어주기 위한 행사로 「2003 봄축제」를 최근 개최했다.

무료로 식품을 받으려는 시민은 연방정부의 최저 소득지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2003년 3월 또는 4월의 우편소인이 찍힌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청구서를 제출해 최소 30일 이상 市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소득증명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고용·건강·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남은 식품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제공하려는 봉사단체,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후원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역경 극복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자아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진행되었다. 주최측은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고용·건강·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dallascityhall.com/dallas/eng/html/springfest.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대도시 교외지역의 인구 증가 가속 (미국 전역)
- ② 옛 수도원을 예술가 작업실 및 주거단지로 재건 (파리)

도시환경

- ③ 웹사이트를 통해 홍수 예상 정보 제공 (뉴욕)
- ④ 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 축제」 개최 (파리)
- ⑤ 하수처리장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수배출권」 거래 (동경)

도시교통

- ⑥ 철도 안전사고 예방 위해 외국 철도사고 사례 조사 (홍콩)
- ⑦ 테러 발생에 대비해 지하철 내에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 (뉴욕)
- ⑧ 버스의 통행속도 향상 위해 노건 운행 허용 (애틀랜타)
- ⑨ 도시 외곽지역에 호출형 버스 도입 (영국: 뉴캐슬)
- ⑩ 지하철 교통카드 소지자에게 관광명소 이용혜택 제공 (런던)

사회복지

- ⑪ 어린이에게 2개 국어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서관 서비스 실시 (달러스)

행재정

- ⑫ 외국인 체류자 통계조사 실시 및 비유럽권 외국인의 사회통합정책 모색 (파리)
- ⑬ 주민 호응도 높은 부동산관리정책 시행 (미국: 피닉스)

① 대도시 교외지역의 인구 증가 가속 (미국 전역)

미국 'Census Bureau'는 2000년도 인구 센서스 조사에 근거해 2002년도 카운티별 인구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주요 대도시의 도시 외연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예로 텍사스州的 댈러스(Dallas) 외곽지역인 록웰(Rockwell) 카운티는 1년 사이에 인구가 8%나 증가했다. 이러한 교외지역의 인구증가 현상은 덴버, 애틀랜타, 워싱턴 등 대도시권 주변 카운티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지역적으로는 서부 및 남부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도시 외연화 현상으로 통근시간은 길어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90분 이내이다. 또한 도시 외연화 현상으로 인해 도시 외곽지역에 업무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nytimes.com/aponline/national/AP-Census-Counties.html)

② 옛 수도원을 예술가 작업실 및 주거단지로 재건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17세기에 지어진 문화유산인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 85개 및 주거단지로 재건하여 2003년 7월경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1968년에 폐쇄된 이 수도원은 마리 드 메디치가 탁발 수도사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그동안 병원·건축학교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1992년에는 일련의 예술가 집단이 1년간 이 수도원을 사용했는데, 이 기간동안 많은 예술작품들이 만들어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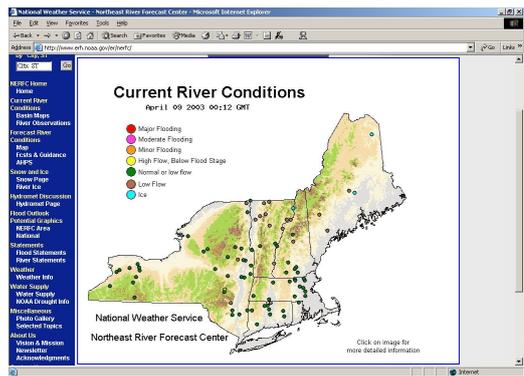
이번 사업은 민관합작회사인 RIVP가 맡았고, 문화부, 교육부, 대학 및 기타 외부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건물을 사용할 문화예술단체 및 해당 연구가들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수도원에는 일-드-프랑스 건축가모임 지역의회가 건축 도서관도 설립할 계획이다.

(피가로, 2003. 2. 13)

3 웹사이트를 통해 홍수 예상 정보 제공 (뉴욕)

미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는 최근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미 동부지역의 주요 강에 대한 홍수 예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도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수가 예상될 경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경보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홍수발생 예상지점 및 시기, 홍수의 지속시간, 향후 30일간의 수위, 예측의 정확도 등이다.

올해 미 북동부 지역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당국은 지역 주민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 홍수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관리 담당자들이 홍수 및 가뭄 통제, 수력 발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noaanews.noaa.gov/stories/s1107.htm)



4 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 축제」 개최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4월 26~27일 양일간 불로뉴(Boulogne)와 뱅센(Vincennes) 숲에서 2003년 「파리市 나무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市의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을 소중히 하고, 정원 가꾸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소별로 9개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별로 숲을 가꾸는 정원사들과 생태교육자들의 다양한 공연 및 전시가 열렸고, 시민들이 숲을 돌아보며 각 지역마다 올해의 ' 으뜸 나무'를 선정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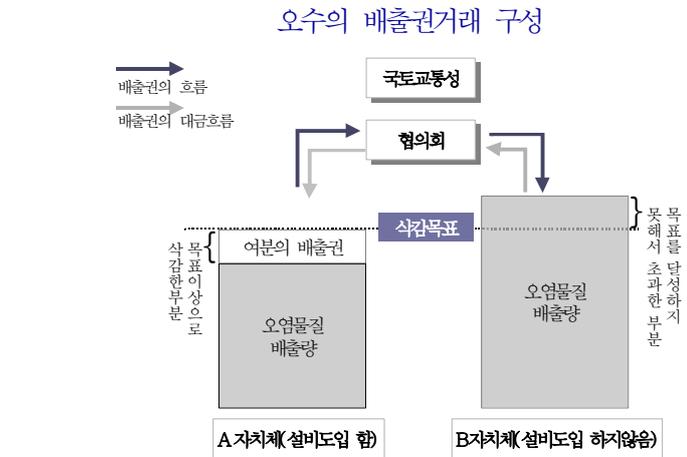
(www.paris.fr/FR/actualites/fete_arbre_2003/default.htm)

5 하수처리장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수배출권」 거래 (동경)

일본 국토교통성은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처리장에 삭감목표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오염물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창설할 계획이다.

우선, 東京항에 하수를 흘려보내는 수도권 77개 처리장을 대상으로 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인데, 삭감대상물질은 양식업에 큰 피해를 주는 적조의 원인인 질소와 인이다. 국토교통성은 2012년까지 질소 68%, 인 80% 삭감을 목표로 정하고, 각 지자체에 목표치까지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특수한 고도처리설비가 필요하다. 설비를 도입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게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설비 도입으로 목표 이상의 삭감을 달성하는 지자체는 투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미달성이 많을 경우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므로, 설비 도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전(全)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설비투자를 할 경우 배출삭감 비용은 연 998억엔이라고 한다. 처리장에 유희지가 있는 등 조건이 좋은 일부 지자체는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할 경우 삭감비용이 11% 낮은 892억엔까지 감축된다.



(日本經濟新聞, 2003. 4. 16)

6 철도 안전사고 예방 위해 외국 철도사고 사례 조사 (홍콩)

홍콩의 주요 철도인 'Mass Transit Railway(MTR)'과 'Kowloon-Canton Railway (KCR)'는 철도 안전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외국의 철도 안전 사고 사례를 면밀히 조사·검토할 예정이다. 홍콩 철도당국은 지난 2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이러한 조치를 마련했다. 당국은 대구 지하철 사고를 비롯한 외국의 각종 철도 안전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기존의 안전장치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홍콩 경찰당국도 외국의 경찰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입수할 계획이다.

(cnni.wyellowbrix.com/pages/cnniw/Story.nsp?story_id=37301395&ID=cnniw&scategory=Transportation)

7 테러 발생에 대비해 지하철 내에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 (뉴욕)

미국 뉴욕시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철 내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시대중교통운영기관인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는 지난 9. 11 사태 이후 1일 수송인원이 460만명에 달하는 지하철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East River 밑을 통과하는 8개의 터널구간에 감시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다. 또한, 주요 역내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신발상자 크기의 센서를 설치하여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센서는 워싱턴 D. C의 지하철역 10여 곳에도 설치되어 있다.

(www.nypost.com/news/regionalnews/71342.htm)

8] 버스의 통행속도 향상 위해 노면 운행 허용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시는 주요 교통축인 조지아(Georgia) 400번 도로상을 운행하는 버스에 한해 노면(길어깨) 주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Bus-on-Shoulder System」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계획은 'Georgia Regional Transportation'와 州교통부가 함께 추진 중인 'Georgia 400번 도로 향상 계획'의 일환으로, 버스전용차선(혹은 다인승 전용차선)이 없는 도로에 추가로 도로를 건설하지 않고도 도로 혼잡에 따른 버스통행속도의 저하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미 미네아폴리스시는 이러한 방식을 시행중인데, 기존 도로시설물 활용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향후 18개월에 걸쳐 해당 도로구간의 노면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www.grta.org/news_section/current_articles/ga400_buses.htm)

9] 도시 외곽지역에 호출형 버스 도입 (영국: 뉴캐슬)

영국 노섬벌랜드주(Northumberland)는 정기버스노선을 개설하기에는 수요가 적은 도시 외곽지역에 호출형 버스(bused-on-demand)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Northumberland County Council'이 뉴캐슬대학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이 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화 예약을 하면 된다. 이용자가 예약을 하면 서비스관리센터는 기존의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버스통행경로를 계산하고 이를 버스기사에게 알려주게 된다.

최근의 운영결과에 의하면, 이 버스는 1일 20~65회 통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교통당국은 이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ws.bbc.co.uk/2/hi/technology/2946965.stm)



④ 지하철 교통카드 소지자에게 관광명소 이용혜택 제공 (런던)

영국 런던 지하철은 4월 한달 동안 교통카드(Travel Card)를 소지한 승객에게 「2 for 1-plus」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교통카드를 소지한 승객은 누구나 市の 대표적 관광명소와 뮤지컬 극장, 호텔 등을 1명의 요금으로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런던 지하철은 이를 위해 市の 관광명소 18곳, 뮤지컬 극장 전체, 호텔 24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관광명소에는 런던타워, 타워브리지 등은 물론, IMAX 시네마, 수족관 등 신세대 취향에 맞는 곳도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10만원 내외로 입장료가 비싼 편인 뮤지컬 극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가생활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되어 반응이 좋았다. (London Underground, 2003. 4. 1)

④ 어린이에게 2개 국어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서관 서비스 실시 (댈러스)

최근 미국 댈러스 도서관과 스페인어 방송국 KXTX는 세대간 독서프로그램인 「Leyendo Juntos(함께 하는 독서)」를 시작했다. 이는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에게 2개 국어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bilingual storytime)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봄부터 댈러스 공립도서관 중 3곳의 지역도서관에서는 KXTX의 텔레비전 리포터와 앵커가 3~8세의 어린이에게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첫째 토요일 오후 2시에 Lakewood 지역도서관, 셋째 토요일 오전 11시에 Walnut Hill 지역도서관, 넷째 토요일 오후 2시에 North Oak Cliff 지역도서관에서 진행된다.

댈러스 공립도서관 시스템은 J. Erik Jonsson 중앙도서관, 이동도서관, 그리고 市전역에 위치한 22개의 지역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댈러스의 모든 공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www.dallascityhall.com/dallas/eng/html/don_bilingual_storytime.html)

④ 외국인 체류자 통계조사 실시 및 비유럽권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 모색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역사적으로 많은 외국인 체류자들이 철학, 예술, 기술 등 문화를 발전시켜온 데 힘입어, 현재 市에 거주하는 비유럽권 외국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구(區)별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는 INSEE의 조사를 바탕으로 2002년 APUR가 정리한 것인데, 각 구별로 외국인 체류자들을 유럽권과 비유럽권으로 나눈 후 이들의 연령, 성별, 구별 구성비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市는 향후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유럽권 외국인들도 사회 안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www.paris.fr/FR/Solidarite/paris_integration/default.htm)

④ 주민 호응도 높은 부동산관리정책 시행 (미국: 피닉스)

미국 피닉스(Phoenix)市 근린서비스부(Neighborhood Services Department)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市의 근린조례를 알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89%는 이 조례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의 80%에 비하면 상당히 향상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동산관리의 최저기준을 요구하고 청결 조례를 준수하도록 한 市의 조치에 대해 주민들의 59%가 7점(10점 척도) 이상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2002년의 50%와 비교하면 상당히 향상된 것이다.

부동산관리문제는 주민에게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주민 47%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과 정원’을 중요한 근린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의 45%는 ‘낙서’, 26%는 ‘빈집’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서비스부는 ‘근린보호조례 및 규칙집행정책’ 연감에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www.ci.phoenix.az.us/NEWSREL/survey.html, 2003. 3. 19)